

태평양지역의 미국 안보와 중국

• Jack N. Merritt
- 편집실 옮김

부시 美 대통령은 <미국 안보전략>의 서문에서 「새로운 세계질서는 현실이 아닌 동경과 기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극체제와 함께 제한적인 동맹을 구축한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이루어졌었던 「舊 세계 질서」가 소멸되면서, 미국정부는 「新 국제구도」에서도 지도적 위치를 확보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이들은 앞으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력 지원을 필요로하는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세계에 걸쳐 인종분규와 영토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여기에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그에 수반되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사실상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미래의 태평양안보에서 미국의 역할과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동아시아 전망

환태평양은 보는 방향에따라 달라집니다.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리고 중·남미 서쪽해안의 국가들은 역시 아시아 태평양국가들과 무역상대국으로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 항로는 에너지 자원의 유통과 상호 교역에서 필수적인 무역로인데, 미국 육·해·공군의 지속적인 주둔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의 인터뷰에서 Yeo Ning Hong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필리핀 Subic灣에서 철수한 미국 해군에서 항만시설을 제공한 이유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해주며, 동남아시아 각국들이 경제 발전에 모든 힘을 집중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지지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브르네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ASEAN 국가들도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정식 군사협정을 맺은 일본은 계속적인 북미시장으로의 진출과, 에너지 획득을 필요로하는 경제 강국입니다.

일본은 남·북한과 중국의 세력원충지역으로 미군의 일본 주둔을 환영하며 주둔경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남한 역시 대처하고 있는 북한의 명백한 핵무기 개발에 비추어 미군의 주둔을 지지하고 정식군사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에 대한 남한과 일본내의 반대세

력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장기적 견지에서 보면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은 깨닫고 이에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은 최근 1000마일의 방어범위 한계를 뛰어넘어 군사력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철수가 가져올 안보의 공백은 일본에 의해 채워질 것이고, 결국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쟁국이며 경제력과 초강대국의 지위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 일본 재무장의 견제세력으로 남아있습니다.

• 북미 전망

북미의 관점에서 보면 환태평양은 일본, 남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경제발전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핵무기 기술 확산의 문제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 문화, 무역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미군철수는 태평양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안보확보의 필요성을 이유로 군사력 확장을 계속한다면 이 지역 국가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낼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도 일본의 자국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러시아도 머지않아 태평양지역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등장할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도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런 대화는 러시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 중국의 안보야심

중국이 빠른시일내에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군사력의 현대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중국은 더이상 군사적 위협을

받지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재무장에 관한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중국은 우선적으로 경제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인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평화는 경제적 목표와 초강대국의 지위를 얻는데 필수적입니다.

• 미국의 안보와 태평양의 중요성

미국은 머지않아 유럽에서의 전례처럼 태평양에서도 점차적으로 주둔병력을 철수할 것입니다.

미국은 안보가 위협받을 정도로 군사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행정부의 국방예산 감축 요구로 군사력은 더한층 위축될 것입니다.

최근 유고의 비극적 사건과 舊 소련연방국가들의 군사적 충돌은 유럽대륙을 제1·2차 세계대전으로 이끌었던 상황을 연상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최근 태평양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미군의 철수는 이 지역국가들에 지나친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입니다.

광범위하지는 않더라도 계속되는 탈냉전체제속에서 미국과 태평양국가들의 군사적 협정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군사협정은 권리나 연합에 기초한 형식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원조와 훈련등,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현상하에서 미국은 특히 군사 부문에서 중국과 대결이 아닌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태평양지역에서 급속한 미군의 철수로인한 안보의 공백과 이로인한 무분별한 군비경쟁이 가져올 불안정한 상태는 주변국들 사이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며, 남·북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평양지역에서 미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중국, 일본, 남·북한, 호주 그리고 ASEAN의 폭넓은 대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위 국가들이 참여한 군사문제를 다루는 기구의 설립은 이 지역의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